

사람이 중심 되는 '한국사 萬人譜'

「이야기 인물한국사」 전5권 펴낸 이이화씨

누가 한국의 역사를 움직였는가.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는 작업은 당시대를 주도하는 인물들의 역할과 생각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간의 역사연구의 대종이 사건 중심, 시대 중심의 通史에 치우쳐 있었다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역사인물 연구'는 사람이 모여 일궈내는 역사에 있어 그 주체인 인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역사의 사실과 그 사실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더 깊숙이 파고드는 역할을 한다.

이 부문연구의 중요성에 남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눈떴고, 그랬기에 비로소 봄을 이루는 지금에 있어 저 삼국시대부터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 걸출한 200여명의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과 역사에 끼친 영향 등을 낱낱히 파헤쳐 다섯권의 책으로 한데 묶어낼 수 있는 이이화(56)씨는 그런 점에서 누가 뭐래도 선각자인 셈이다.

‘다시 씌어진’ 역사인물 이야기

그가 이번에 펴낸 「이야기인물한국사」(전5권, 한길사)는 역사인물만의 이야기로 다섯권의 방대한 분량에 담고, 시기적으로도 어느 한 시대에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외형적인 성과 외에도 상당한 역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거나 그 명성이 약한, 즉 다시말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인물들을 대거 복원시키고, 집권층의 필요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영웅화된 인물들은 제위치로 내리는 등 저자의 사관에 따라 다시 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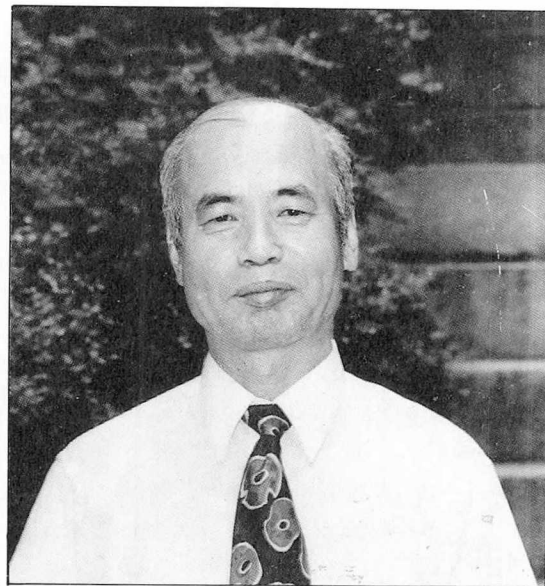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

는 특정 당파나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의 위인은 유교이데올로기에 맞는 인물들이 많은 것도 한 예지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당연시하던 영웅이나 위인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개인문집 등 중요한 사료 외에도 야담류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자료에서도 그 인물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거라면 서슴없이 참고, 가능한 한 객관적 이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인다.

모두 다섯권에 나눠담긴 역사인물들은 각각 '사상과 학문의 주역들'(1권) '민족문화를 일으킨 선각자들'(2권) '제왕의 길, 치국의 도'(3권) '시대와 맞선 풍운아들'(4권) '역사상의 라이벌과 동반자'(5권) 등 각권마다 큰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주로 학자들을 탐구 대상으로 한 1권은 다시 서경덕, 이언적, 이황, 조식, 기대승, 최한기 등과 같이 민족사상사의 줄기를 만든 이들과, 이수광, 유형원, 이익, 홍만선 등과 같이 한국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실학자들 및 강위, 장지연, 박은식, 이승화와 같이 학자이면서 격변기를 헤쳐간 우국지사들, 그리고 양예수, 허준, 유상, 피재길, 이제마, 장영실 등과 같이 문치주의의 허점을 보완해준 의학·과학의 명인들을 다루고 있다.

2권은 변계량, 서거정, 김시습, 허균, 장훈, 김삿갓, 황진이, 계생, 윤지충, 나철, 송만갑, 정윤성, 최북, 백선행, 이지함, 서기, 남사고 등 문학과 예술가, 종교인과 사회봉사자들을 다뤘다. 다른 부문과는 달리 특히 2권의 인물들은 행적이 감춰져 있거나 유실된

상당한 역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거나 그 명성이 약한 인물들을 대거 복원시키고, 집권층의 필요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영웅화된 인물들은 제위치로 내리는 등 저자의 사관에 따라 다시 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이화씨.

경우가 많아 쓰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은 부문이다. 3권은 역대의 왕들을 비롯해 왕의 곁에서 역사의 개척을 도왔던 정도전, 황희, 이목, 유성룡, 이덕형, 김육 등의 조선시대 위정자들과 개화기로 넘어와 김홍집, 박규수, 어윤중, 민영준, 이완용, 최인 등 친일자들의 흔적을 더듬고 있으며, 또 한 장에는 인현왕후, 정순왕후, 철인왕후와 같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영욕을 함께 했던 몇몇 왕후들을 조명했다.

4장은 제목에서도 이미 흥미를 끌듯 정개청, 정인홍, 정여립, 임경업 등 봉건왕조시대의 풍운아들을 비롯해 만적, 홍경래, 이필제 등 민중의 지도자와 최시형, 김덕명, 전봉준과 같이 동학농민전쟁의 주역 및 이상재, 장지필, 김좌진, 이화림 등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을 다뤘다. 마지막 5권은 각분야의 라이벌들을 상호대립시켜 그들의 관계와 역사에 끼

친 영향을 살피는데 수양대군과 김종서, 김부식과 정지상, 신사임당과 황진이, 이황과 조식, 이순신과 원균, 허균과 기자헌, 허목과 송시열 등이 그들이다.

평이하고 재미있게 서술

훌륭한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했다는 따위의 영웅신화를 탈피하려 한 점과, 내용의 서술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평이하여 청소년 및 역사에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게 한 점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이화씨는 이 책 말고도 최근 「조선족의 삶을 찾아」 펴낸 「중국역사기행」을 펴냈다.

— 정혜옥 기자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4,000원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파라독스 이습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습 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보뤄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의 지음/이효립 엮고 옮김/3,500원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공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신의 들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 한 책/피터 톰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이트 T. 스펀딩/정정영 옮김/7,000원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이록/오소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아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3,500원

대동(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엮 감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